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5월 8일 부활 4주일(가정주일) · 다해 · 백색

제57-18호

예수의 정체 -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

(요한 10:22~30)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요?” 이 통명한 질문에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적대의 감정이 물씬 묻어납니다. 오늘 장면에 이르도록 예수님은 앞에서 몇 번이고 “나는 ~ 이다”는 특유의 어법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 이다”는 어법은 구약성서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자주 쓰시던 형식이니, 유대인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 말했는데도 “분명히 말해 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에 들지 않으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오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낯선 이를 향한 배척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을 조입니다’(24절). 멀쩡한 눈과 귀를 막아서 스스로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리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신앙에서 떨어져 스스로 만든 편견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맙니다. 더 심해지면, 좁고 완고한 자기주장을 신앙이라 우기기 시작합니다. 특이하고 강렬한 종교 체험, 교리에 관한 근거 없는 맹신, 질문과 대화 없는 믿음, 자신의 성취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일로 빠져듭니다. 이러한 감옥에 갇히지 말라고, 예수님은 신앙의 식별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신앙생활의 진수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앙 식별 기준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져 속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든, 낯선 가르침이

든 그 불편한 도전을 받아들여 배우는 일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서로 인정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속하는 관계가 신앙입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이르려면, 수많은 만남과 접촉, 갈등과 화해, 배움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체험과 주장을 조율하며 사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조율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러니 배움과 사귀의 공동체가 신앙의 식별 기준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깊은 상태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30절)라는 사랑의 일치 선언으로 가르칩니다. 서로 다른데도 그 안에서 함께 일치하려는 신앙 공동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이며, 하느님과 일치를 체험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신앙인은 이 부활의 공간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이 공동체 속한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새롭고 낯선 이를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배우며, 사귀어 서로 목소리를 알아듣는 신뢰의 삶입니다. 이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로 태어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가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되려는 인간의 간절함이 만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외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참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가정 심방 일정 연기

사목단 사정으로 5월 중 심방 일정과 신청 접수를 연기합니다. 구역장과 기도인도자 모임을 거쳐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교회위원회 사목과 선교 워크숍 결과보고

영등포 성당의 상황과 선교 비전에 관한 고민 본격적인 출발
사목과 선교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와 정리
결의사항

- 1) 주일 애찬 방식 논의와 위임 (관할사제와 어머니회장이 방식을 마련하고 신자회장과 최종 협의하여 추후 공지)
- 2) 제단 공간 정비 - 제대 위치 원상 회복과 제단 카펫 교체, 성가대 원위치 회복 (성전 2층)
- 3) 성전 2층 공간 정비 - 성가대석으로 회복, 영상 음향실 정돈 (유리벽의 창문 변경 또는 철거)
- 4) 성당 후문 가건물(불법, 노후화, 미관 문제) 철거
- 5) 지하 어린이 예배실 공조 시설 개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설치)
- 6) 전례 영상 장비 구축
- 7) 활동단체방 사용 조정 (베드로회와 안드레회 방 공유, GFS 방 대안 필요)

2. 사목단 부활절 피정

구관하 신부 5월 11일-13일

3. 구역장과 인도자 모임

다음 주일(5월 15일) 12시 30분 성전
구역 상황과 구역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와 논의하니,
구역장과 기도인도자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꽃봉헌

이은미 교우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기원 교우가 생일을 맞이하여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미라(8일) 차민정(9일) 고태희(10일) 김요한(11일)
김재엽 유인재 유환현(13일)

◆ 훈배 공시 ◆

신랑: 김정태(베네딕트) 김중희·김예중의 아들
신부: 최원이(드보라) 최호용·임경림의 딸
2022년 5월 28일(토) 낮 12시 서울주교좌성당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아랑 고흥 구관하신부 김진우 김영대 김영해 김종희 박해용 서세룡 송미경 신명식 오현희 우영현 유해상 유호애 윤범기 윤선구 윤영자 윤용환 이복련 이순경 이용해 전병도 정상임 정은숙 정정훈 조혜순 주낙현신부 주애다 최효운 한재엽

■ 주정헌금

곽은영 김경아 김삼홍 김요한 김종현 문혜화 서정민 송미경 송미정 송종의 신회숙 윤희주 윤영자 윤옥랑 이경희 이성빈 이정숙 정은숙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 부활감사헌금

우영현 윤영자

■ 감사헌금

윤영옥(평일미사) 한기원(생일) 이복련(건강)
이충웅(생활) 윤영자(퇴원) 우영현(영상장비)
송미경(건강)

■ 기탁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윤용환 이복련 윤영자 이순경

■ 극기헌금

이순경 추형두

■ 성공회대장학헌금

김복자

■ 온라인선교헌금

이복련 이순경

■ 여성선교헌금

이복련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가정의 달 - 생명의 감사와 축복

싱그러운 5월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따스한 기온 속에서 온갖 생명이 자라나니 세상이 모두 환합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염려하고 격려하며 지켜온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립니다. 수고했다며 서로 칭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 신앙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 때, 어른들의 생각과 바람으로만 경쟁과 속도에 밀어놓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기도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만 자라나도록 기도와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은 부모님의 몸과 수고를 통해서만 세상에 나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부모님의 땀과 눈물은 언제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패인 주름살과 뾰록해진 손과 발을 볼 때마다, 그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가족은 마음과는 달리 언제나 복잡하고 아픈 사연으로 얽혀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두 감사의 기억입니다. 먼저 떠나신 분들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효도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바르게 배워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이 이달에 있는 까닭을 되새깁니다. 스승은 자신의 지식과 옳음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여, 젊음이나 후배의 삶이 좀 더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그 헌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어서 흔들리기 쉬운 세상이지요. 거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더 사려 깊고 품위 있게 자신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부부의 날(5월 21일)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느님의 신비한 선물입니다. 이 신비한 인연이 싹트는 관계가 부부의 인연이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부부는 연인이 느끼는 한때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긴 순례 안에서 정을 쌓아가며 살아가지요. 이 신뢰의 동행이야말로 부부의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무심한 듯 살아온 자신을 돌이켜, 눈을 아내와 남편에게 다시 돌리고, 말없이 손을 잡고서 서로 감사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76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은혜로우신 하느님, 잃은 양들을 찾아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9:36-43 말은이
시편 시편 23편 다함께



-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 아쉬울 것없어라.
- 2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 물가로 이끌어 쉬게하시니
- 3 지켰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 4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없어라
- 5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
이롭니다.
- 6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이름,
○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멘

2 독서(읽는다) 묵시 7:9-17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요한 10:22-30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92 다함께
봉헌성가 ♪ 507장/베드로회 다함께
예물기도 ✧ 292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92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292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5월 8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15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서정민	전병도	우영현	김종희
2독서	우영현	김경아	서정민	박남미
대 도	신명식	신환중	신명식	이성식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5월 15일	전례독서 사도 11:1-18 시편 148 묵시 21:1-6 요한 13:31-35 성 가 입당 212장 봉헌 500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461장			
교 회 청 소	5월 14일 유빌라테회 2조 성하준 이현정 이자영		5월 21일 청년회 김태영 한예지 김건우 조용현 송종익 신승지 정민경 정희진 김예찬 우영현 하원재 김경찬	